



장엄미사 전대사 & 병자성사

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례기념일인 2월 11일, 장엄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전대사를 받으며, 질병(난치병)이나 고령으로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과 가톨릭계 병원이나 각 성당에서 같은 지향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분들도 전대사가 허용되었다.



